

“순망치한(唇亡齒寒; Mũi Hở Răng Lạnh)”과 비대칭성의 구조*

- 베트남·중국 관계와 국경의
역사경관(historyscapes) -

심주형**

목차

- I. “70년 동안의 우의(Hữu Nghị; 友誼)” 그리고 국경
- II. 베·중 국경 지역 역사경관의 변화
 - 1. ‘순망치한’의 상호인식과 투과성(permeability)의 전유
 - 2. ‘동지’적 우의 관계에 관한 상상
 - 3. 물신화된 ‘우의’와 균열
 - 4. 전쟁과 ‘배신’의 기억 그리고 ‘정상화’
- III. 결론 - 비대칭성의 정상태(normalcy)로서 베·중 관계

I. “70년 동안의 우의(Hữu Nghị; 友誼)” 그리고 국경

“1950년 1월 18일은 베트남과 중국 두 이웃 국가 관계사의 이정표였습니다. 70년 동안, 양국의 당, 국가 그리고 인민들은 어깨동무하며, 서로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843).

**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옹호하고, 크고 값진 도움을 주며, 각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해방 사업의 성공에 공헌했습니다. 호찌민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우의와 양국 선임 지도자들의 북돋는 노력은 두 민족의 값진 자산이 되었고, 베트남과 중국의 전통적 우의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¹⁾

2020년 1월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당-국가 지도자들이 상호 축전을 교환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베트남 측은 양국 간 ‘70년 동안의 우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단 없는 발전과 공고화가 ‘역사적 책임(trách nhiệm lịch sử)’임을 강조하였고, 중국 측 축전에는 ‘산과 산이 이어지고, 강과 강이 이어진 사회주의 이웃’인 양국관계의 ‘미래’와 2008년 이래 외교적 최고단계로 격상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5년 “8월 혁명”에 성공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호찌민이 이끈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 현재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1949년 “국·공 내전”의 승리를 통해 수립된 마오쩌둥이 이끈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리적인 근접성(proximity)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건설 전 과정, 그리고 오늘날 경제발전 협력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상호관계를 맺어 왔다. 베·중 국경 지역에서 프랑스군에 포위된 채 힘겨운 항전을 펼치고 있던 베트남민주공화국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소식이 정치적으로 고무적인 사건이었고, 곧바로 1950년 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을 공인(công nhận)하였다.²⁾ 중국은 사흘 뒤인 1월 18일,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베트남민주공화

1)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Điện mừng kỷ niệm 70 năm ngày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 Trung Quốc”

<http://www.mofahcm.gov.vn/vi/mofa/nr040807104143/nr040807105001/ns200120140115>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2) Nguyễn, Huy Toàn, Vũ Tang Bông, Nguyễn Huy Thực, Nguyễn Việt Bình and Nguyễn

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이렇게 공식적인 양국관계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70여 년의 역사가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긴장과 전쟁, 그리고 외교 관계 단절 등 반목과 포성으로 뒤흔들린 굴곡의 역사이기도 했다. 사실상 ‘70년 동안의 우의’ 관계라는 수사는 ‘동지’와 ‘형제’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상 친족 관계(fictive kinship)’ 구축에 관한 상상과 실천으로 출발해 오늘날 ‘사회주의 이웃 국가’로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복잡한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기보다는, ‘의례적 주문(ritual incantation)’의 반복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글은 베트남과 중국의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국경의 역사경관의 변화를 추적하며 양국관계를 형성하는 동학(dynamics)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앞서 제시한 ‘70년 동안의 우의’ 관계에 관한 서사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담론에 기반하여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신성화하고 호찌민과 마오쩌둥이라는 혁명지도자를 통해 ‘전통적 우의’를 물신화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1979년 양국의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10여 년 동안 국경 지역을 전장으로 만들며 국경봉쇄로 이동을 제한했던 역사는, 직접적으로는 양국 공산당 지도부의 갈등과 경합으로 일어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통적’ 우의 관계는 국경에서 혹은 국경민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왔으며, 국경 지역의 삶의 방식에서 그 기원과 가능한 형태의 지속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이 국경이라는 민족-국가의 주변부적 역사경관(historyscapes)에 주목하며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가장자리에서’ 역사 읽기를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국경 지역은 양국 모두에서 역사적으로 대부분 소수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며, 1979년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중앙’의 정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외딴 지역(remote

Minh Đức, *Sự thật về Những Lần Xuất quân của Trung Quốc và Quan hệ Việt-Trung*. Đà Nẵng: Đà Nẵng, 1996, p.17.

area)³⁾이었고, 역설적으로 냉전 시대 민족-국가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국경 지역의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⁴⁾는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경은 양국의 당-국가체제가 각각의 통치성을 실현하거나 유예하며, 민족-국가체로의 ‘위계적 포섭(vertical encompassment)’⁵⁾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배타적으로 경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냉전 지구화 시대의 양국 간 ‘국제급 국경 관문(international border gates)’들은 국경 경관을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의 질서가 작동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국 간의 관계만이 아닌 다자적 관계에 대한 상상과 실천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또한 국경의 역사적 경관을 통해 양국관계의 동학을 추적할 때 특히 베트남의 관점에서 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과 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당-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체의 근접성(proximity)을 바탕으로, 공생과 공존의 불가피성은 끊임없이 양국관계를 설명하는 주된 담론이 되어 왔다.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서사는 양국 간의 문화-정치적 공통성의 지평 위에서 양국관계의 ‘친밀한 독립성’에 관한 정치 윤리적 당위성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은 중국의 중급 성 정도 규모의 국가이며, 중국이 주변 14개 국가와 약 22,0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할 때, 베·중 국경은 그 중 10%에도 미치지 못할 뿐이다. 총 1,449.566km 길이의 육지 국경에 중국의 두 개 성과 베트남의 일곱 개 성이 면하고 있다. 베·중 관계에는 이처럼 ‘규모의 정치

3) ‘외딴 지역’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고립적이거나 목가적 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중앙’ 정치 및 여타 지역과는 ‘공시성(synchrony)’과 ‘동시성(simultaneity)’의 장소적 차이가 두드러지며, 종종 사건의 ‘강렬함(intensity)’과 ‘가독성(legibility)’이 공간적 재현과 상상의 주된 표지(標識)가 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4) Agamben, Giorgio, *State of Ex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5) Ferguson, James, and Akhil Gupta,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Vol. 29, No. 4, 2002, pp. 981-1002.

(politics of scale)’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즉, 주로 베트남 상황에서는 중요한 문제-특히 교역과 원조 등-가 중국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들로 취급되는 상황 구조가 빈번하게 작동해 왔다. 그러므로 ‘순망치한’과 ‘비대칭성의 구조’는 양자적 관계에서 상호적 경합과 모순을 생성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게 전략적 혹은 대안적 관계를 모색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경의 역사경관은 바로 이러한 양국관계의 두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베·중 국경 지역의 역사경관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변화무쌍한 양자관계”⁶⁾라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이 글이 특별히 베트남의 입장과 관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역사적 양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밀접성과 주변성에 대한 불안과 마주하며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이 글은 먼저 베트남과 중국 국경의 역사경관을 시기별로 양국 관계사와 국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글이 다루는 시기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탈식민주의와 냉전시대를 관통하는 두 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볼 것이다. 1940년대 이후 베·중 국경 지역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주의 동지’로서 ‘우의 관계’에 대한 상상과 물신화가 진행되기도 했던 역사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는 1970년대 말 베트남과 중국이 갈등과 반목 끝에 전쟁과 단교를 경험하고 1990년대 지구적 탈냉전의 초입에 이르러서야 양국관계를 ‘정상화’했던 과정과 그 후 육지 국경을 획정하는 데 합의하고 협력관계를 재편해 가고 있는 보다 최근의 상황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베·중 국경 지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건설사가 겹쳐지고 교차하는 역사적

6) Womack, Brantl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t the Border of China and Vietnam: An Introduct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 981.

공간이었다. 또한, 국경의 역사경관을 구성하는 상이한 기억 서사들이 양국관계의 변화를 통해 재구성되거나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켜왔다. 국경의 정치가 영토성과 주권에 대한 상상, 이동성에 관한 전유와 통제 및 연결과 단절의 방식과 기제들을 전유하며 드러내 보이는 ‘가독성 (legibility)’⁷⁾이, 정치 권력의 작동방식과 딜레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베·중 국경 지역 역사경관의 변화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베·중 국경 지역 역사경관의 변화

1. ‘순망치한’의 상호인식과 투과성(permeability)의 전유

“...

베트남의 형제 자매들이여! (越南兄弟姊妹阿)

어서 빨리 일어나 중국을 구합시다 (快快起來助中國)

중국인을 돕기 위해 노력합시다 (努力幫助中國人)

중국과 베트남은 입술과 이와 같습니다 (中國越南如唇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줄 알아야만 합니다 (須知唇亡則齒寒)

중국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救中國是救自己).”

[평산(平山), 「중국을 구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하는 것」 『구망일보(救亡日報)』 1940년 12월 4일자⁸⁾

7) Scott, James C.,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2.

8) ‘평산’은 호찌민의 필명이며, 이 시는 호찌민이 쓴 ‘최초의 한시(漢詩)’로 알려진다. 호찌민은 당시 『구망일보』가 발간되던 구이린(桂林)에 머무는 동안 모두 8편의 기사를 투고하였다. Pác Can, “Bài thơ chữ Hán đầu tiên của Hồ Chí Minh,” *Tạp chí Hán Nôm*, số 1, 1990.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에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자, 호찌민과 같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세력’⁹⁾은 베·중 접경지역인 광시성과 윈난성 지역에서 ‘증대된 활동의 자유’¹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하노이에서 활동하던 팜반동(Phạm Văn Đồng)과 보응우엔지압(Võ Nguyên Giáp)도 중국 남부로 월경해 호찌민과 함께 베트남 사회주의 세력의 조직을 정비하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지원을 통해 정치·군사훈련을 위한 학교 등을 세웠다. 또한, 중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 세력 결집을 꾀하던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¹¹⁾를 통해 ‘반제국주의’ 전선을 확대 구축해 나갔다.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었다. 베트남 국민당(Việt Nam Quốc Dân Đảng)이 주도한 1930년 ‘엔바이 봉기(Khởi nghĩa Yên Bái)’ 이래 ‘항불항전’에 대한 지지세가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조직들도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민족 자결권(自決權)을 설파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1940년 유럽에서 벌어진 독일의 프랑스 침공은 인도차이나 상황에 정치·군사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촉발했다. 곧이어 아시아 전역을 전장화하고 있던 일본군이 광시성을 통해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졌다.¹²⁾ 하이난다오(海南島) 등 중국 남부 해상을 봉쇄하고 베트

9) 당시 베트남의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세력 내에는 트로츠키주의자,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분파가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반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을 일반적 의미에서 민족주의 세력으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세력은 광의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0)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A Life*, New York: Hyperion, 2000, p.229. 호찌민은 1938년 소련을 떠나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 활동을 모색했으나, 1940년 2월 윈난성 쿤밍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 해외 당지부의 풍찌끼엔(Phùng Chi Kiên)과 동료들을 직접 만날 때까지 당 지도부와 접촉이 닿지 않았다.

11) 중국 남부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지도자로 쑹영보이푹(Trương Bội Công)을 들 수 있다. 그는 프랑스를 피해 월경한 저항세력들을 조직하려 시도하였다. Duiker, *Ibid.*, p.246.

12) Marr, David G., *Vietnam 1945: The Quest for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14-22.

남 북부에 진출한 일본군은, 특히 항구도시 하이퐁(Hải Phòng) 통해 중국 쿤밍(昆明)으로 운송되고 있던 군수품과 보급품의 이동을 차단해 중국을 압박하고자 했다. 일본의 베트남 진출과 베·중 국경의 주요 보급로 봉쇄는 중국이 베트남을 항일(抗日) 전쟁의 관점에서 연루된 주체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찌민이 『구망일보』에 기고한 시에서 활용한 ‘순망치한’의 서사는 중국의 원조와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베트남지역의 정치적 변화가 지닌 민감성과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베트남 북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군과 충돌하자, 국경 지역인 랑선(Lạng Sơn)성에서 ‘박선 봉기(Khởi nghĩa Bắc Sơn)’¹³⁾가 발발하였다. 이 봉기를 계기로 베트남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국경 산악지역을 기반으로 하노이로 진공하는 무장항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베트남 북부 까오방(Cao Bằng)성과 접하고 있는 광시성 정시시(靖西市)로 당의 외부 사령부를 옮기고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거점을 유지하면서도 베트남 국내 활동 거점을 구축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의 국내 활동 거점이었던 남끼(Nam Kỳ; 코친차이나 Cochinchina)지역에서의 봉기(Nam Kỳ khởi nghĩa)가 실패해 주요 활동가들이 검거되고 국내 조직이 붕괴된 상황 역시 중국의 지원과 베·중 국경 지역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조직 재정비 계획에 명분을 주었다. 마침내 1941년 설 다음날(1월 28일) 호찌민이 이끄는 일군의 베트남 혁명가들은 국경을 넘어 까오방성 팍보(Pác Bó)의 한 동굴에 정착했다. ‘베트남 혁명’의 새로운 역사는 1887년 프랑스와 청(淸)국 사이에 처음으로 확정되었던 베·중 국경으로부터 불과 1km도 채 떨어

13) Dương, Trung Quốc, *Việt Nam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 (1919-1945)*, Hà Nội: Giáo Dục, 2001, pp.318-319.

지지 않은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경에 근접한 동굴에 첫 근거지를 만들었던 베트남 혁명세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해방구’를 확대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해 갔다. 그들은 국경 지역 소수민족과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며 프랑스군에 맞서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중국 남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통일전선과 결합은, 일본의 베트남 진출이라는 상황과 더불어 베트남 사회주의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호찌민 등 사회주의 세력은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 나가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 국민당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 남부에서 위조 신분증을 지닌 일본 첩자로 오해받아 구속되었던 호찌민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중국 공산당보다는 중국 국민당과 민족주의 세력의 협조 덕분이였다.¹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통일전선체였던 ‘비엠큐(Việt Minh; 베트남 독립동맹의 약칭, 표기는 현지어 발음을 따름)’은 국경 산악지역에서 오랜 투쟁 끝에 1945년 ‘8월 혁명’에 성공하였다. 마침내 9월2일에 하노이의 바딩(Ba Đình) 광장에 선 호찌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 건설을 선포하였다. 프랑스와 일본이 배·중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인적 물적 이동을 가로막는 강력한 통제조치들을 취해 왔었지만, ‘산과 산이 이어지고, 강과 강이 이어진’ 국경 지역의 ‘투과성(permeability)’은 소수민족의 지원 및 참여와 더불어 그들의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에 대한 전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¹⁵⁾ ‘베트남 독립의 꿈’에 자양분을 제공했다.

호찌민과 비엠큐가 배·중 국경의 지정학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14) Duiker, op. cit., pp.263-276. 듀이커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호찌민의 석방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실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15) 심주형, 『탈냉전시대 베트남 북부 소수민족 삶의 초국성(Trans-Nationality)』, 『열린 동남아: 초국가적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심주형·김소연·이한우·배기현·윤대영 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14-30쪽 참조.

며 준비했던 베트남 ‘8월 혁명’이 성공하고 국경의 산악지역을 떠나 하노이로 입성하자마자 상황은 또다시 급변하였다. 포츠담 회담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지역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치안 유지를 위해 북위 16 도선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에는 중국 국민당 군대가, 남부지역에는 영국군이 진입하게 되었다. 국민당군은 빠르게 움직였고, “호찌민이 바딩 광장에서의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교정하고 있는 동안, 중국 국민당 점령군 선발부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하노이로 흩어져 들어오기 시작했다.”¹⁶⁾ 원난성의 군벌 루한(盧漢) 장군이 이끄는 두 개의 군단과 광시성에 주둔하고 있던 두 개의 군단 등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민당군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 북부에 ‘평화군’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국민당군이 베트남에 들어가는 상황을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정치적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첫째, 중국을 승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 등과 국제적 지도력을 공유하는 국가로 확인시키고, 둘째, 보다 직접적으로는 베트남의 하이퐁과 근처의 여러 작은 항구들을 통해 원난성과 광시성의 국민당군을 중국 공산당보다 먼저 북부와 중부로 이동시키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군대가 머무는 동안 원난성을 통치하고 있던 룡원(龍雲)을 쿠데타를 통해 몰아내고자 했다.¹⁷⁾

프랑스군을 피해 중국 남부로 망명했던 응우옌하이틴(Nguyễn Hải Thần)과 부흥카잉(Vũ Hồng Khanh) 등 상당수의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중국 국민당군을 따라 베트남으로 돌아왔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정치 세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임시정부는 전략적으로 국민당군과의 무력충돌을 피하는 한편 귀국한 민족주의 세력이 국경 지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에도 대처해야 했다. 당시 국경 지역은 비엠텩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동시에 중국으로 건너가 국민당과 함께 활동했던 상당수 지역의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기에

16) Duiker, op. cit., p.326.

17) Marr, op. cit., pp.496-497.

이들의 귀향은 임시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이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별히 지침을 내려야만 했다.¹⁸⁾ 이처럼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서 국경 지역의 상황 변화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에 민감성을 부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중화민국이 프랑스와의 독자적인 협정을 맺고 프랑스군의 북부지역 재진입을 허용하고 국경을 넘어 되돌아간 이후, 1946년 말 비엠탱 세력은 다시 하노이에서 밀려나 북부 국경 지역을 기반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다시금 베·중 국경 지역은 게릴라 전쟁과 검문·검속의 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국경 지역 경관은 한편에서는 ‘반외세’ 혹은 ‘반제국주의’라는 공통의 목표가 제국주의적 통제와 상호 의심을 넘어 월경을 통해 실험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국민당군의 진입과 철수 경험을 통해 베트남의 정치적 주권에 관한 불안정성이 싹트는 과정을 함께 담아내고 있었다.

2. ‘동지’적 우의 관계에 관한 상상

“베트남-중화, 연대의 전선은 나날이 견고해지고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며

...

세계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를 보낸다

아! 아! 하나의 사상 한마음으로

혁명의 붉은 깃발 혼이 깃든 레닌의 길 위에서

아! 아! 우리 인민들은 영원히 노래 부르리, 호찌민! 마오쩌둥!”

[도누언 (Đỗ Nhuận, 1955), “베트남 - 중화 (Việt Nam-Trung Hoa)”

18) Duiker, op. cit., p.329.

2절 가사 중¹⁹⁾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다시 북부 국경 지역을 거점으로 프랑스와 전투를 벌이던 시기, 중국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 2차 국·공 내전’에 들어가 정치적 운명을 건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당시 중국 남부지역은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었고, 협약체결을 통해 베트남 북부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를 용인한 국민당 정권은 비엠흥과의 적대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출범 이후, 민족주의 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 공산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거의 단절하 다시피 했고,²⁰⁾ “1947년 봄에야 옌안의 공산당 본부와 무전 연락이 당

19) 노래가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를 두고 자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베트남 국영방송(Dài Truyền Hình Việt Nam)에서 방영한 비디오 클립에서는 1955년 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Nhân Dân)에 가사 전문이 실린 것은 1964년 9월 28일이고, 레닌을 언급한 2절 가사가 생략되고 중국어 가사 번역본이 추가되어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함께 번갈아 불러 녹음된 음원은 1966년 작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래가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양국 모두에서 불리기 시작한 시기로 알려진 1966년이 ‘노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시기일 수 있지만, 대중적 정치선전을 위한 노래를 하나의 ‘사회문화적 인공물(socio-cultural artifact)’로 간주할 때 원곡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를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적 건조환경’으로 파악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고려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도누언이 1954년 말 장기간 중국에 머물며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 전투에 관한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사실과 배·중 관계사의 맥락을 고려할 때, 1955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 II, Quyền Bình* Saigon, Boston, Los Angeles, New York: OsinBook, 2012, pp. 10-23; 추가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1955년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0) 중국 측 자료에는, 1946년 3월 장제스 군대를 피해 광둥성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 제1연대가 베트남 북부로 들어와 피신하다, 1949년에 되돌아 갈 때까지 베트남 인민군에 대한 훈련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Zhai, Qiang,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11-12. 그러나 베트남에서 발간된 자료들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현우, 「베트남 전쟁시 중국의 북베트남 지원과 양국관계, 1950-1975」,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66쪽. 1946년 3월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대표단이 중화민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칭(重慶)을 방문했다는 기록과 루한의 국민당군이 6월에 베트남 철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공산군이

은”²¹⁾ 상황이었기에 정치·군사적으로 고립되었다. 외부 지원이 끊긴 국경 지역에서 식량과 군수품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교역이 필수적이었는데, 화교 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던 중국의 원난성 그리고 특히 광시성과의 교역 덕분에 가까스로 버틸 수 있었다.²²⁾

프랑스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고립된 상황이었지만 베트남 관점에서 국경 너머 중국 상황의 변화는 곧바로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1948년 초 베트남의 국경 거점인 까오방성과 인접한 광시성 징시시의 혁명근거지를 대해 프랑스와 국민당이 함께 공격하자 군인 일부와 기관이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베트남의 군민(軍民)들이 “중국을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쌀, 소금, 무기 그리고 재정 등 모든 면을 지원했다”는 기록²³⁾은 ‘순망치한’의 서사에 부합한 것이었다. 1948년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베·중 국경 지역에서 양국의 공동작전도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949년 초 ‘광시-광동 변구(邊區)’의 군 지도자들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력군이 화난(華南)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호찌민은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고, 6월 초부터 베트남 북동부 국경 지역에서 광

이 시기 북부 베트남지역에서 비엠탱과 함께 활동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한편, 1946년 공산주의자들이 베·중 국경지대에서 ‘독립 연대’로 불리던 “중월 합동부대”를 만들어 농(Nùng)족과 타이(Tày; 토 Thờ)족 공동체 사이에서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다. Duiker, op. cit., p.414. 여러 기록과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 공산당 중앙과 비엠탱 세력이 직접 연결되어 본격적으로 원조나 지원 혹은 공동활동을 펼치는 시기는 1948년 이후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1) Duiker, op. cit., p.414.

22) Goscha, Christopher E., “The Borders of Vietnam’s Early Wartime Trade with Southern China: A Contemporary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992-999.

23)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44-45. 이 시기 베트남의 중국 지원 관련 기록은 대체로 중국 측의 일방적인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역설하는 자료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역사는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된 공격을 받아 왔고, 동시에 민감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언급이 되지 않다가, 1979년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외교적 대응과 정치적 선전전의 한 방식으로 관련 자료 공개와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성 남부지역으로 군사작전²⁴⁾을 전개하여 ‘광시-광동 변구’의 군대와 함께 해방구를 건설했다.

베트남민주공화국 군대가 국경 지역에서 겪고 있던 경제적, 군사적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 남부지역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돕는 군사작전을 펼쳤던 역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른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실천이 ‘국경 없는’ 공동 정치-군사 활동으로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훗날 중국이 ‘인민지원군’의 형태로 국경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치렀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둘째, 프랑스군이나 일본군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군을 상대로 한 베트남군의 전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반제국주의’ 전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동지’와 ‘적’의 범주적 구분이 작동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일전선이 해체되는 상황이 국경 지역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미국 등 서구 반공주의 국가들의 시선 속에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이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연합체로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냉전적 국제질서와 민족-국가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예외적 공간’으로서 사회주의적 국경과 월경에 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베-중국경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상황 변화는 베트남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정치환경이자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프랑스는 이른바 ‘1949년 3월 엘리제 협정(the Elysée Agreement of March 1949)’을 통해 베트남의 독립과 전(前) 황제였던 바오다이(Báo Đại)를 ‘국장(quốc trưởng; 國長)’으로 한 ‘베트남국(Quốc gia Việt Nam)’의 수립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호찌민의 비엠큐는 베트남 내 합

24) 베트남 까오방과 랑선성의 북부 광시성 산악지역, 동싱시, 친저우시(欽州市)를 해방하고 난닝시(南寧市) 지역으로 진격하는 작전이었다.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p.46-52.; 이한우, 앞의 논문, 167쪽.

법 정부로서의 지위와 공인을 두고 바오다이 정부와도 국내외적으로 경합하게 되었다. ‘독립 선언’ 이후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을 표방하며 프랑스 내 여론과 미국을 설득해 외교적 해법을 찾고자 했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어느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하고 있던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은 이러한 경합 상황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베트남은 1950년 1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인정하면서 외교 관계 수립을 요청하였고, 중국은 1월 18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적 국가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였다.²⁵⁾ 소련도 1월 30일 베트남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북한과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뒤따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정치지형 변화에 민감해진 미국은 곧바로 2월 초 프랑스가 제안한 이른바 ‘바오다이 해법’을 받아들이고 ‘베트남국’을 공인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이 ‘인도차이나 문제’에 공식 개입하게 되는 역사의 시작점이었다.²⁶⁾

양국 외교 관계 수립 후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공식적인 원조와 지원 활동이 개시되었다.²⁷⁾ 당시 베트남 쪽 국경 지역의 주요 관문들은 프랑스군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적, 인적 원조의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경 지역에 거점과 ‘해방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호찌민은 중국 측에 이른바 ‘국경 작전’²⁸⁾을 지

25) 베트남이 외교관계 수립요청 전문을 베이징으로 보냈을 때,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 중이었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베트남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서독(West Germany)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미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프랑스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스탈린은 마오에게 소련보다 먼저 수교할 것을 권하였다고 한다. Zhai, op. cit., p.16.

26) Hess, Gary R., “The First American Commitment in Indochina: The Acceptance of the “Bao Dai Solution,” 1950”, *Diplomatic History* Vol. 2, No. 4, 1978, p.347.

27) 중국의 베트남 원조에 관해서는 이한우, 앞의 논문 참조.

28) 작전의 구체적 경과는 다음을 참조. Zhai, op. cit., pp.26-33.

도할 군사고문단의 파견을 요청했고, 웨이귀칭(韋國淸)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지원단과 천경(陳慶)이 이끄는 군사고문단이 작전을 지휘했다. 마오쩌둥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들과 베이징에서 만난 자리에서, 호찌민과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중국혁명을 도왔고 그 중에는 희생자들도 있기에 이제는 프랑스와 싸우는 그들을 돕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²⁹⁾ 말하며 ‘동지적 우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했다.

‘국경 작전’의 주요 대상지였던 광시성과 윈난성 남부 국경을 따라 이어진 베트남 ‘4번 국도(Quốc lộ 4)’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4번 국도는 랑선, 까오방, 라오까이 등 대부분의 북부 국경 산악지역을 동과 서로 연결하는데 그 중에서도 철도로 쿤밍까지 연결되는 라오까이와 도로로 난닝까지 연결되는 랑선은 국경의 요지로서 비열밍이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곳들이었다. 특히 랑선성의 ‘애남관(Ái Nam Quan; 隘南關; 오늘날의 우의관 友誼關)’은 홍강 델타지역과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이자 베트남 전역을 관통하는 1번 국도와 중국 난닝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직접 만나는 곳이었다.³⁰⁾ ‘국경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1950년 10월 랑선성 국경 지역이,³¹⁾ 그리고 11월 초에는 라오까이도 ‘해방구’가 되었다.

국경 지역 상황이 안정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지고 원조물자 유입도 점차 원활해지자 베트남 인민군의 전력은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천경과 같은 군사고문단 일부도 베트남을 떠났다. 강화된 군사력과 전투경험을 통해 보용우엔지압이 이끄는 베트남 인민군은 국경 산악지역 해방구

29)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21-22.

30) Shim, Juhjung, “Haunted Borderland: The Politics on the Border War against China in post-Cold War Vietnam”, Ph.D. Dissertation,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2014, pp. 221-223.

31) Ủy ban Nhân dân tỉnh Lạng Sơn, *Địa Chí Lạng Sơn*,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1999, pp.253-255.

인 이른바 ‘비엣박(Việt Bắc)’ 지역을 중심으로 홍강 델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전선은 국경을 따라 라오스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군사고문단과의 공동작전과 훈련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국 혁명모델’을 베트남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고들이 베트남 당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해방구’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계는 높은 세금과 징발로 인해 점점 열악해져 갔다. 국경 지역에서 비엣밍 세력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민족 등 국경 지역민의 높은 지지 덕분이었으나, 점차 이 탈자와 전향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를 형성하며, 사회주의적 대규모 경작을 실행한다는 명분으로 1953년부터 ‘중국식 토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³²⁾ ‘해방구’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편에서는 빈농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으나, 다른 한편 베트남 인민군 내부에 ‘계급 갈등’을 촉발시키고 ‘해방구’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³³⁾ 8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던 전투상황이 국경 지역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고 있던 것은 분명했고,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중국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 국경을 벗어나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46년 말부터 시작된 프랑스와의 전투가 결정적인 전세의 변화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던 1953년, 미국에서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아이젠

32) ‘중국식 모델’은 ‘중국 고문단의 지도하에’ 진행되었고, 토지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대중들을 동원’하여 지주들에 대항하는 심리적 감정의 형성, 미리 정의된 범주에 따른 주민의 계급 분류, ‘토지개혁 특별법정(혹은 인민법정)’의 권위로 지주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Tessier, Olivier, 2008-2009, “Le <<grand bouleversement>> (long tròi lờ ðất): regards croisés sur la réforme agraire en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Viêt Nam”,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o. 95-96; 유용태 외 편역, 『거대한 변혁 - 북베트남 토지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동아시아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300-310쪽.

33) Zhai, op. cit., pp.38-42.

하워(Eisenhower)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같은 해 새로 부임한 베트남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 앙리 나바르(Henri Navarre)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과 중국이 북부 국경 지역에서 산악로를 통해 라오스와 베트남 중남부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비엣박’ 지역을 배후지에서 공격해 궤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베트남 북서부 고원지대인 디엔비엔푸(Điện Biên Phủ)를 점령하였다. 당시 베트남 인민군을 이끌던 지압 장군은 북서부 국경 지역을 재점령하기보다는 하노이를 향해 진격하기 위해 홍강 델타지역에 집중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서는 원난성에 면한 베트남지역에 프랑스군의 주둔을 방치한다는 것은 안보상 위험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육로 접근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디엔비엔푸에 대한 공격작전을 제안하였다. 결국, 베트남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디엔비엔푸의 프랑스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한편 한국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자 “중국 지도자가 미래의 충돌을 줄이고 빈약한 자원을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배치하기 위해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는 신호들”³⁴⁾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참전은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부담을 남겼으며,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한반도 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서방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뒤이어 소련도 중국의 정치협상 모색에 동조하고 서방에 회담을 제안하였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통해 항전을 계속해 가고 있던 베트남의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 방식으로의 전환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발발한 디엔비엔푸 전투의 성패는 정치협상에 참여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은 전력을 다한 전투 끝에 협상 시작 하루 전날 프랑스군에 대승을 거두었고

34) Duiker, op. cit., p.449.

프랑스군으로부터 항복을 얻어냈다.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단은 ‘전승’ 소식으로 고무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휴전이 아닌 베트남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회담에서 관철시킬 수도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회담에 참여한 중국은 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단이 17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단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³⁵⁾ 회담에서 중국은 국제 정치무대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선 베트남의 군사적 지원자이자 보호자인 듯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³⁶⁾ 국경 지역에서 중국 ‘군사고문단’의 활동이 ‘동지’적 관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상상을 제고했다면, 제네바 회담에서 ‘외교고문단’인 듯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중국의 이미지는 ‘위계적 관계’와 양국관계의 비대칭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비록 2년 후 선거를 통해 통일한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분단 결정’이 알려지자 디엔비엔푸의 승전에 대한 대중적 환호는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³⁷⁾ 제네바 회담 결과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양국관계가 ‘동지적 우의 관계’로 발전하는 기대감을 낳기보다는, ‘전통적 위계관계’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35) 심주형, 「정처없는 애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68년 ‘후에학살’에 관한 기억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제50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7, 146-148쪽.

36) Sự Thật, *Sự Thật Về Quan Hệ Việt Nam - Trung Quốc Trong 30 Năm Qua*, Hà Nội: Sự Thật, 1979, pp.29-36.

37)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중국과 소련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오히려 당시의 베트남민주공화국 지도자들이 ‘합법 정부’로서의 인정과 미국의 개입방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재평가도 있다. Asselin, Pier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Vol. 11 No. 2, 2011, pp.174-183.

3. 물신화된 ‘우의’와 균열

“...
강가에서 동류(同流)에 몸을 씻으며,
나는 그 쪽을 바라보고, 당신은 이쪽을 바라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닭이 우는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 [도누언, 1955, “베트남 - 중화 (Việt Nam-Trung Hoa)” 1절 가사 중]

“동지이자 형제인 베트남과 중국의 깊은 애정” [호찌민, 1963]

디엔비엔푸 전투에서의 대승 그리고 제네바 회담을 통한 휴전과 베트남 분단이 결정되면서, 베·중 국경 지역을 뒤흔들던 포성이 잦아들었다. 그러나 ‘분단결정’은 정치적 긴장과 불안감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제네바 회담 합의문 제14조에 명시된 ‘한시적 자유 이주 보장’에 따라 80만이 넘는 베트남 북부 지역민들이 남부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이 중 ‘75% 이상’은 비엠틀의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는’ 천주교도였다.³⁸⁾ 또한, 이미 ‘해방구’에서 실시되고 있던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도 이주 행렬에 동참했다.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고, 북베트남 지도부는 전후 복구사업과 실질적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은 여전히 정치적 과제로 남아있었지만 제네바 회담에서 끝내 총선거 실시에 동의하지 않았던 미국이 남베트남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요원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북을 건설하고 남을 바라보자”³⁹⁾라는 새로운 정치적 슬로건이 등장했다.

38) Hansen, Peter, “Bắc Đi Cư: Catholic Refugees from the North of Vietnam, and Their Role in the Southern Republic, 1954-1959”,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4, No. 3, 2009, pp.178-182.

39) Duiker, op. cit., p.473.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중국 모델’은 정치·경제 전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기존 군사자문단을 유지하면서 경제자문단을 파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책에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중국은 북베트남의 가장 막강한 지원국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북베트남과 소련의 관계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던 데다, 호찌민에 대해 정치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이 사망한 것도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북베트남은 ‘국가’로서 본격적인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사회주의 블록’ 국가들, 그리고 ‘비동맹 국가’들과도 다자관계를 형성하며 지구적 냉전 질서에 편입되어갔다. 비록 공공연하게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식 토지개혁’ 사업 추진과 처참한 실패 경험은 ‘중국 모델’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토지개혁 사업을 주도하던 당비서 쩌엥쩡(Trùng Chinh, 베트남어로 ‘장정(長征)’을 의미)의 실각도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베트남식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제네바 회담 이후 북베트남에서 베·중 국경은 ‘혁명’과 ‘항전(Khang Chiến)’ 승리에 관한 서사에서 중요한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로 자리매김해 가기 시작했다. 남베트남 정부와 정치적 경쟁 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맞서 지난한 항쟁을 벌이고 끝내 승리를 이룬 주체가 북베트남 정부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서사적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경 지역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했던 ‘영웅들의 삶과 동지애’와 ‘불굴의 의지’가 숨쉬는 ‘혁명의 성지’로 상징성을 획득해 갔다.

한편 국가 행정조직들이 정비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국경 지역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6년 말 베트남 국경 지역의 성들과 중국의 광시성과 윈난성 정부 사이에 국경 지역의 안전보장,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관리에 관한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듬해인 1957년 말, 베트남 노동당(현재의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양국 국경의 각 성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을 검토하고 특히 국경선 문제에 관해 당 중앙 차원의 합의를 요청했다. 베트남 당 중앙은 서신을 통해 국경 지역 성들의 간부나 기관들이 임의로 국경 표지를 다시 세우거나 땅을 나누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887년과 1895년에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공약(công ước)을 존중하자고 제안하였다.⁴⁰⁾ 중국 공산당 중앙은 1958년 4월 답신을 보내 베트남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 중앙의 상호합의에 따라 1958년~1959년 사이 양측은 서로 토지와 임야를 되돌려주고, 복잡한 역사적 유산과 관련되거나 새롭게 발생한 국경 문제들을 처리했다. 주요 문제들은 “국경 표지석의 유실, 토지 경작, 산림·수산·축산 자원 훼손, 묘지 매장, 양측의 부채, 통혼(通婚), 국적과 교민문제, 이주, 치안, 국경관리” 등이었다. 이 당시의 합의는 적어도 육지 국경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1970년대 말까지 특별한 추가 논의 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이 합의는 양국이 최초로 국경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한 근거로 1999년 새로운 육지 국경 합의서가 채택될 때까지 인용되었다.⁴¹⁾

국경 문제에 대한 양국의 포괄적 동의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베·중 관계가 전례 없이 친밀한 ‘동지’ 관계였으며, 국경 지역에서의 공동작전 등의 경험으로 국경 지역 각 성 정부의 간부들 사이에 상호 신뢰 수준도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따라 ‘국경’은 일시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언젠가는 ‘소멸될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1957~58년의 국경문제에 관한 합의가 베·중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국경민들, 특히 화전을 일구거나 유랑하는 대부분의 소수민족 인구에 대한 국가적 통제조치들이라는 점과 직접적으로는 시민권에 관한 규정들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국경 문제에 대한 최초의 양국 간 공식 합의가

40) Vū, op. cit. p.225.

41) Ibid., p.226.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적 협의와 결정이 아닌, ‘당 중앙’의 상호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위계적 거버넌스’ 체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조중 변계 조약(朝中邊界條約) 체결과정의 공식성, 중소 국경분쟁 등, 중국과 다른 주변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일련의 국경 문제들에 대한 처리방식과 비교해 볼 때, 베·중 국경 문제가 서신 교환을 통한 합의 수준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민족-국가적 질서’에서 양국관계가 특별하며 ‘예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56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가 무산되고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동안, 남베트남 지역에서는 응오딘지엠(Ngô Đình Diệm)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사회주의자 검거와 처형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베트남 당내에서는 남베트남지역에서 활동하다 하노이에 온 레주언(Lê Duán)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과 군사개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갔다. 중국은 북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호찌민도 미국의 개입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59년 1월 개최된 제15차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부지역 ‘해방’을 위한 북베트남의 직접적인 개입이 의결되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북베트남의 지원 요청안에는 특별히 베·중 국경 지역에 군수품 창고를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⁴²⁾ 이듬해 열린 제3차 당 대회에서 레주언이 당비서로 선출되면서 무력으로 ‘남부 해방’을 달성하려는 계획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⁴³⁾ 소련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던 중국도 태도를 바꿔 북베트남의 계획을 지지하고 지원에 나섰다.

미국이 1964년 이른바 ‘퉁킨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을 빌미로

42) Zhai, *op. cit.*, p.83.

43) Goscha, Christopher, *Vietnam: A New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6, pp.307-308.

베트남에 군사개입을 선언하고 1965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하면서 ‘베트남전쟁’이 전면화되었다. 베트남전쟁 동안, 중·베 국경 지역에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피난 온 정부 기관과 사람들,⁴⁴⁾ 그리고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뒤섞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경험을 고려하여 중국이 베트남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해 다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고, 베·중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다. 이 ‘완충지대’(비행 금지구역)는 베·중 국경으로부터 약 46km 정도 떨어진 베트남 영토까지 설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랑선 등 상당수 국경 도시들과 주요 국경 관문들은 ‘피난처’가 되었다.⁴⁵⁾ 국경 지역은 북베트남 베트남인들의 피난처만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을 피하려는 중국 피난민들도 베트남 쪽으로 열려 있는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었다.⁴⁶⁾

베트남전쟁 기간, 베트남 랑선성 국경 지역은 다른 어떤 국경 관문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세기 말 베트남 북부지역을 식민화한 프랑스 식민지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개 노선의 철로를 건설했다. 1902년 하노이와 랑선성 동당(Dồng Đăng)을 잇는 노선이 완공되었고, 프랑스의 야심 찬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였던 하이퐁에서 하노이, 라오카이, 허커우, 쿤밍을 잇는 이른바 ‘인도차이나 윈난 철로(Che-
mins de Fer de L’Indochine et du Yunnan)’는 1910년에 완공되었다.⁴⁷⁾ 그러나 이 철로들은 1940년 베트남 북부로 진입한 일본군이 중국 남부로

44) 호찌민은 1965년 5월 마오쩌둥과 중국 창사(長沙)에서 가진 비밀 회담에서 하노이 북부지역 12개 도로에 대한 보수와 건설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Zhai, op. cit. p.133-134. 이 도로망 구축은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북부 국경 지역과 하노이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45) Momyer, William W., *Air Power in Three Wars [WWII, Korea, Vietnam]*, Washington D.C.: Dept. of Defense, Dept. of the Air Force, 1978, p.183.

46) Womack, op. cit., p.984.

47) Rousseau, Jean-François,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Vol. 35, No. 1, 2014, pp.1-17.

연결되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파괴하는 바람에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1954년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통치가 보장되자 중국은 국경 노선에 대한 철로 복구와 연결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은 특별히 하노이-동당 선을 중국 광시성 핑시앙(萍鄉)과 연장해 개통했고, 그에 따라 랑선성 국경은 도로와 철도 모두 중국과 연결되는 국경관문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기간 전 세계에서 보내온 전쟁물자와 구호품 상당량은 핑시앙과 동당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와 트럭을 통해 국경을 넘었고 다시 베트남 전역의 전장(戰場)으로 퍼져나갔다.⁴⁸⁾ 중국은 1954년 광시성과 베트남 랑선성의 국경 관문(隘南關)에 ‘목남관(睦南關)’이라는 이름을 붙여 양국 간의 특별한 친밀함을 기리고자 했었는데, 1965년 본격적인 베트남 지원사업이 이 관문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동지적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랑선성의 ‘우의관’은 현지인들이 ‘육지 내부 항구(Nội Cảng)’라고 부를 만큼⁴⁹⁾ 물류와 병력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이 월경의 흐름은 전례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을 향하고 있었다. 중국 측 물류기지 역할을 했던 핑시앙시에서는 넘쳐나는 월경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1967년에는 500여 대가 넘는 트럭이 배치되어 운행될 정도였다.⁵⁰⁾ 중국과 소련 등 동구권에서 들어오는 물류와 더불어 1965년 6월부터 중국군도 국경을 넘어왔다. 이들은 베트남의 방공망을 운영하고 도로, 교량, 철로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군이 북베트남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벌인 덕

48) Zhai, op. cit., p.137. 베트남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의 물류 통제 방식 때문에 적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남베트남으로 적절한 시기에 무기 등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세관은 북베트남에 무기 등 지원 물품을 보내려는 국가들은 중국을 통해야 하며, 배송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p.72-73.

49) Shim, op. cit., p.223.

50) Zhai, op. cit., p.137.

분에 북베트남군 상당수가 남쪽의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1965년 5월에서 1968년 3월까지 32만 명 이상의 중국군이 북베트남에 파병되었고, 1973년 8월 북베트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1,100명의 사망자와 4,200명의 중국군 부상자가 발생했다.⁵¹⁾

중국이 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식 참전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참전방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국은 중·소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과 영향력을 두고 소련과 경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북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전면화되던 시기에 과국으로 치달은 중·소 분쟁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양자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베트남 정부와의 정치적 경합 상황에서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다.⁵²⁾ 또한, 중국 국내를 휩쓸었던, 특히 광시성에서 격렬했던 문화혁명의 영향, 즉, 마오주의 확산과 유입 이주민 문제 등까지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북베트남 정부는 중국군이 북베트남 군복으로 환복하거나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특히 직접적인 대민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했으며 ‘마오 배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⁵³⁾

51) Zhai, op. cit., p.135. 이 사상자 및 부상자 자료에 근거해 비슷할 시기와 기간에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한국군 피해 규모와 비교해 보면 중국군의 피해 규모는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북베트남군이 전력 열세로 인해 10배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인 추정치를 고려하면, 중국군이 대체로 국경 지역 방공, 공병 지원 등 전선의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52) 토지개혁과정에 참여했던 중국인 고문단은 싸(xā, 社) 단위 기초 행정단위까지 내려가 활동을 했었기에 베트남민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수관계’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관련 증언들과 중국에 의한 지배와 저항의 역사를 강조하는 베트남 민족주의적 사관을 활용한 남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반공주의 선전전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으며 남베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53) Zhai, op. cit., p.152.

1968년 북베트남이 이른바 ‘설 총진공과 봉기’ 작전을 감행하자⁵⁴⁾ 미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심각하게 악화된 국내 반전여론에 직면하였다. 결국,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폭 작전(Operation Rolling Thunder)’의 중지가 선언되었고 북베트남에 협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평화회담 참여와 합의 내용을 두고 북베트남과 중국의 ‘의견 차이’는 커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가입 지지, 경제 제재 철회, 대만에서 미군 철수 등 양국관계 개선을 약속하며, 중국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고 북베트남이 평화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⁵⁾ 중·미 관계는 중·소 분쟁 상황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1971년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북베트남과 미국의 평화회담이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은 베·중 관계에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미국이 소련과도 회담을 통해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중단과 압력을 요청하면서,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동지’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⁵⁶⁾ 또한,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 내부의 심각한 경기침체는 ‘전쟁 원조’의 지속과 ‘전후복구’ 사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

1973년 극적으로 체결된 파리평화회담의 결정에 따라 외국군대의 철수가 시작되고 ‘종전(終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북베트남은 전후 복구사업과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 제공받은 원조와 차관을 상환할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소련의 도움을 받아 ‘호양사군도(Quần Đảo Hoàng Sa; 西沙群島; the Paracel islands)’ 해상에서 광물탐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54) 심주형, 「정처없는 애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68년 ‘후에학살’에 관한 기억의 정치」, 『한국 문화인류학』 50(2), 2017, 135-187쪽.

55)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p.74-78.

56) “실제로 베트남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원조는 1972년부터 급감하였다”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79.

해상은 중국과 면해 있는 지역이기에 탐사 범위와 관련해 상호 논의가 필요했다. 북베트남은 1974년 중국 정부에 해상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답판을 제안하였다.⁵⁷⁾ 중국은 북베트남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북부만(Vịnh Bắc Bộ) 지역에 제삼자가 시굴하러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제3국을 데려와 시굴하는 것은 “양국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⁵⁸⁾ 여기서 ‘제3국’은 소련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중국의 태도는 북베트남의 친소(親疏)경향에 대한 불만을 국경문제를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베트남전쟁 종전 직전에 촉발된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갈등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원조’의 물신화에 기반을 두었던 ‘우의 관계’의 균열상이 드러난 것이었다. 중·소 분쟁의 격화로 분화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는,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북베트남의 친소경향 강화와 사망한 호찌민을 대신해 새로운 ‘동지’로 부상한 캄보디아의 폴포트(Pol Pot)의 등장 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원조 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베·중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던 물자와 인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러한 ‘역류’는 양국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케 하는 것이었다.

4. 전쟁과 ‘배신’의 기억 그리고 ‘정상화’

“국경의 하늘에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체 인민들을 깨워 새로운 전쟁에 나서게 한다.

야만적인 팽창주의자 베이징 침략군이

대지를 유린하며 진격해 오고 있다.

국경 지역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피가 뿌려지고 있다”

[팜뚜옌 (Phạm Tuyên, 1979) 작, “독립과 자유를 위한 전쟁 (Chiến đấu

57) Vũ, op. cit., p.234.

58) Sự Thật, op. cit., p.68.

vi độc lập tự do)” 중⁵⁹⁾

1979년 2월 17일 새벽 5시, 베트남 북부 랑선성에 있는 ‘우의의 관문 (Cửa khẩu Hữu nghị; 友誼關)’을 포함한 주요 국경 관문들과 군사시설들을 향해 중국인민해방군의 포격이 개시되고 탱크와 보병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⁶⁰⁾ 당시 베트남 인민군 주력부대는 캄보디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총리 팜반동(Phạm Văn Đồng)과 군 참모총장 반띠엔중(Văn Tiến Dũng)도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었다.⁶¹⁾ 베트남은 정규군으로 맞서 싸울 전력이 없었고 국경 지역 민병대만으로 중국인민해방군에 맞서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중국군은 전쟁 초기 곧바로 베트남 국경 지역의 6개 성(현재는 7개성)의 주요도시-라오까이와 까오방의 성도와 캄드엉(Cam Đường, 라오까이 국경관문지역), 동당(랑선의 우의관 소재지역)-를 빠르게 점령했다.⁶²⁾ 그러나 하노이와 가장 가까운 국경관문이 위치한 랑선에서의 저항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당시 중국군은 “랑선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은 하노이에서!”라는 구호를 호기롭게 외치기도 했었으나, 3월 5일이 되어서야 랑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랑선성의 수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하노이에 알려지자,

59) 1979년 당시 베트남 국영 라디오 방송(Đài Tiếng nói Việt Nam)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팜뚜옌은, 국경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노래를 만들어, 4일 만에 국영방송으로 송출했다고 한다. Lao Đông, “Chiến tranh trong mắt ai: Gặp lại tác giả “Tiếng súng đã vang trên bầu trời biên giới”(2014. 2. 7.)

<https://laodong.vn/xa-hoi/chien-tranh-trong-mat-ai-gap-lai-tac-gia-tieng-sung-da-vang-tren-bau-troi-bien-gioi-180601.bld> (검색일: 2014년 12월 5일).

60) Công An Nhân Dân Vũ Trang Bộ Tư Lệnh, “Sơ kết cuộc chiến đấu chống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từ ngày 17-2 đến ngày 18 tháng 3 năm 1979 ở biên giới tỉnh Lạng Sơn” (1979. 4. 6.). 무장인민경찰사령부(Công An Nhân Dân Vũ Trang Bộ Tư Lệnh)는 1979년 전쟁이 끝난 후 국방부 산하 ‘국경수비대 (Bộ đội Biên Phòng)’로 확대 재편되었다.

61) Zhang, Xiaoming, “China’s 1979 War with Vietnam: A Reassessment”, *The China Quarterly* Vol. 184, 2005, p.863.

62) Ibid.

같은 날 저녁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베트남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총동원령(Tổng Động Viên)’이 전국의 스피커와 라디오를 통해 긴급하게 발령되었다.⁶³⁾ 1960년대 북베트남지역 학생이라면 모두가 따라 불렀다는 “영원히 노래부르리 호찌민 마오쩌둥”로 끝나는 도누언의 노래는 포성에 묻혔고, 북부 대도시와 주변성들의 학생, 청년들은 한때 원조물자를 나르던 트럭에 올라 국경으로 향하며 팸꾸언의 노래 가사 “야만적인 팽창주의자 베이징 침략군”의 이미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들의 손에는 대부분 베트남전쟁 기간 중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무기와 장비들이 쥐어져 있었다. 베트남 당중앙위원회가 ‘총동원령’을 발령해 ‘결사항전’을 선언한 다음 날, 중국 정부는 ‘베트남을 위한 가르침’⁶⁴⁾을 충분히 주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뒤 철군을 발표했다. 철군 발표 후에도 국경 지역에서 전투는 계속되었고, 베트남은 3월 20일 “60만 중국 침략군을 섬멸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승리”⁶⁵⁾를 쟁취했다고 선언했다. ‘순망치한’, ‘동지이자 형제’ 관계를 양국관계의 상징처럼 반복하던 양국은 국경 지역을 피로 물들이며 총구를 마주했고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마오쩌둥의 전술’에 따라 감행⁶⁶⁾하고도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다. 베트남도 ‘역사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경 지역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남겨져 있었다. 랑선, 까오방, 라오까이성의 모든 촌락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체 국경 지역 “마을 330곳, 학교 735곳, 병원과 보건소 428개소, 농장 41개소, 임업농원 38개소, 81개의 공장, 광산, 8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63) Shim, op. cit., pp.43-49.

64) 덩샤오핑(鄧小平)은 전쟁 발발 직전 미국방문 기간 카터(Carter) 대통령 등 미국 관리들에게 베트남에게 ‘가르침’을 주겠다고 알려주었다. Zhang, Xiaoming, “Deng Xiaoping and China’s Decision to Go to War with Vietnam”,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2, No. 3, 2010, pp.23-25.

65) Nhân Dân, “Thắng lợi rất oanh liệt và toàn diện: Đánh bại 600 nghìn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1979. 3. 20).

66) Zhang, “China’s 1979 War with Vietnam: A Reassessment”, p.865.

완전히 파괴”되었고, 당시 “국경 지역 주민 3백 5십여 만 명 중 절반이 집을 잃었고, 노인, 여성과 아이들 수 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⁶⁷⁾ 베트남의 국경 지역민들은 ‘항불 항전’, ‘베트남전쟁’ 동안에도 겪지 않았던 거대한 규모의 전면적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베트남 국경 지역은 프랑스, 중국 국민당군, 미국으로부터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명과 재산 피해의 현장이자, ‘침략자 중국’의 기억이 숨 쉬는 장소가 되었다. 베트남 당-국가 는 전쟁 이듬해인 1980년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 을 ‘헤게모니 도당(bọn bá quyền)’으로 명시했다.⁶⁸⁾

양국관계의 파국을 현시했던 1979년 국경전쟁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과 통일 이후 베·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결과였다. 중국은 베트남이 요청 한 전후 복구사업원조를 거부하고 북부지역에서 모든 기술자와 지원단을 철수시켰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중 국경 지역의 경우 베트남 전쟁이 종전된 1975년에는 234건의 영토 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1974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한 것이었고, 1978년에는 2,175건으로 약 10배 정도로 급증하였다.⁶⁹⁾ 국경전쟁 발발 전인 1977년과 1978년 사이에 중국 은 육지 국경과 ‘북부만’ 해상 국경에 관해 협상을 제안했지만 베트남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되고 말았다. 육지 국경 문제의 경우, 중국은 19세기 말 프랑스와 청 사이에 체결된 ‘공약’을 존중하자고 했던 1950년대 말의 상호합의를 폐기하고, ‘1895년 공약’ 이후 중국의 이해에 따라 수정되었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⁷⁰⁾ 프랑스와 청 사이의 ‘공약’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윈난성과 라오스 사이의 국경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공약’ 이후 중국측의 이해가 반영되어 조정되었던 국경선이 무시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인도차이나’의 식민 제국주의자인 프랑

67) Nguyễn, Huy Toàn et al., op. cit., p.89.

68) Hiến Pháp 1980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69) Sự Thật, op. cit., p.89.

70) Balazs Szalontai, “Đàm phán biên giới Việt-Trung 1974-1978”(2017. 2. 21.)

(<https://www.bbc.com/vietnamese/forum-39032678>; 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스와 청의 조약을 무시하고,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국경은 양국 간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으나 베트남은 1958년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새롭게 제기된 양국 간 문제로는 베트남 내 ‘화교 문제’도 있었다. 베트남 당-국가가 1977년부터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급격히 추진하기 시작하자 남베트남지역의 화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신경제지구’로 보내지는 베트남 화교들을 ‘난교(nạn kiều; 亂僑)’로 규정하고 송환선을 보내 이들의 ‘귀국’을 돕겠다고 선언했다.⁷¹⁾ 베트남 당-국가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자국의 인구와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하고 반발하였다. 1978년 20여 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 화교들이 량선의 우의관 등 배·중 국경관문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서방의 외신들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국경에서 펼쳐지는 전례 없는 난민 행렬에 주목했고, 배·중 국경은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막을 내리는 현장이 되었다.

국경전쟁을 촉발한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중국의 캄보디아 지원과 베트남의 친소정책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전쟁 직후 불안정한 베트남 남부의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쳤고, ‘크메르 루즈(Khmers Rouges)’의 학살을 피해 수많은 난민이 베트남 남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나서고자 했던 베트남에게 캄보디아의 군사도발과 난민 문제는 심각한 사회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 시기 이전 자국의 영토였던 푸꾸옥(Phủ Quốc)섬 등 일부 영토의 반환을 베트남에 요구했고 베트남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베트남과 중국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소련이 주

71) 노영순, 「1978년 난교(難僑)송환선 사건을 통해 본 중국과 베트남난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1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19. 3., 99-124쪽.

도하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이하 코메콘)’에 정식 가입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결정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소련 편에 서겠다는 공식선언으로 간주했다.⁷²⁾ 중국의 선전매체들은 베트남을 ‘동쪽의 쿠바’, ‘아시아의 홀리건’, ‘소련의 맹목적 추종자’로 묘사하며⁷³⁾ 적의를 확산시켰다. 결국, 1978년 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1979년 초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는 ‘붉은 형제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1979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국교는 단절되었고 전후처리와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1980년대 말까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베·중 국경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발하였고, 한때 “산과 산이 이어지고 강과 강이 이어진” 국경 지역은 ‘투과성’을 통해 정치·경제적 가능성이 싹트는 장소였으나, 지뢰가 매설되고 군부대가 배치되어 충성과 포성이 산과 강을 뒤흔드는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국경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소개(紹介)되었고, 파괴된 건물들은 복구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다. 베트남이 중국을 대신해 선택했던 소련은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동유럽에서 열차로 중국을 통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들어오던 원조물자들로 전후복구와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들은 무산되었다. 베트남의 정책안들을 구성하던 ‘중국 모델’은 ‘소련 모델’로 바뀌었지만⁷⁴⁾,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중국의 봉쇄를 마주하는 상황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베트남은 국경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협상과 담판을 요구했으나 중

72) Woodside, Alexander, “Nationalism and Poverty in the Breakdown of Sino-Vietnam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52, No. 3, 1979, p.384.

73) Zhang, op. cit., p.862.

74)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Ban Đối ngoại (VOV5), “Việt Nam vận dụng sáng tạo Chính sách kinh tế mới của Lênin để đổi mới” (2014. 4. 23.)

<https://vovworld.vn/vi-VN/binh-luan/viet-nam-van-dung-sang-tao-chinh-sach-kinh-te-moi-cua-lenin-de-doi-moi-232579.vov> (검색일: 2020. 12. 1.)

국은 이를 무시했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베트남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⁷⁵⁾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국경전쟁 이후 서로를 ‘배신자’로 호명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무력충돌을 지속하던 상황은 1986년 말 베트남이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모델’을 받아들인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정책을 채택하고 중국과도 국교 정상화에 관심을 공식표명하면서 점차 이완되기 시작했다. 국경 지역에 포성이 잦아들자, 피난을 떠났던 국경민들도 하나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1987년부터는 육지 국경을 사이에 둔 무력충돌이 거의 멈추고 일부 비공식적 교역도 국경민들 사이에 시작되었다. 1988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베트남 당-국가 매체가 중국을 묘사하며 다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⁷⁶⁾은 중요한 변화의 상징적 신호였다. 또한, 베트남 당-국가는 제한적이거나 국경의 6개성이 중국과 교역하는 것을 공식 승인하였다.⁷⁷⁾

국경전쟁이 발발한 지 10년째를 맞이한 1989년은 베-중 관계 정상화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중국은 중-소분쟁의 오랜 역사를 끝내고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사회주의 연대’의 복원을 시도했다. 한편, 뒤이어 발생한 ‘천안문 항쟁’은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은 그동안 중국이 요구해 왔던 베트남 인민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받아들여 국교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동독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안과 연대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았다. 1990년 9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베트남과 중국 양국의 최고위급 당-국가 지도자들은 비밀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이 회담에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요구사항

75) Thayer, Carlyle A., “Vietnam: Coping with China”,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p.352.

76) Nguyễn, Minh Hằng, *Buôn bán qua biên giới Việt-Trung: Lịch sử-Hiện trạng-Triển vọng*, Hà Nội: Khoa Học Xã Hội, 2001, p.110.

77) Roper, Christopher T., “Sino-Vietnamese Relations and the Economy of Vietnam’s Border Reg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1024.

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였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⁷⁸⁾ 여전히 중국에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탈냉전’적 국제 질서에 발맞춰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다.⁷⁹⁾ 그러나 1991년 베트남 공산당 제7차 전당대회에서는 ‘반중파’들이 밀려나고 ‘친중국 노선’이 추인되었다. 양국의 당-국가 지도자들은 1991년 11월, 마침내 외교 관계 정상화를 발표하였다. 이 ‘정상화’는 역설적으로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봉합하고, 탈냉전 시대로 이행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국경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는 ‘탈냉전’ 상황에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친밀성’이 친밀성이 관계를 보증하며,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복원을 통해 양국 상호 관계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임박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다시금 ‘순망치한’의 서사를 덧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과거 베·중 국경 지역에서 양국이 함께 활동하며 상상했던 ‘순망치한’과 ‘동지적 우의관계’로 곧장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국 간의 전쟁과 외교 단절의 역사는, 내부부적 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당-국가 정치권력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가 충돌해 ‘불화(friction)’를 일으킬 때, 전쟁과 같은 과국이 아닌 다른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적 당위성의 근거가 되는 ‘기억의 유산’이 되었다. ‘정상화’의 이면에는 양국의 비대칭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역사에 대한 기억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78) Thayer, op. cit., p.354.

79) 대표적인 인물로 외교부장관을 맡고 있던, 응우옌꺼타익(Nguyễn Cơ Thạch)이 있다.

Ⅲ. 결론 - 비대칭성의 정상태(normalcy)로서

베·중 관계

‘코로나 19 (Covid-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세계 여러 국가의 국경이 봉쇄되고 방역을 위해 외교적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던 2020년 8월 23일, 베트남 북동부 광녕성(tỉnh Quảng Ninh)의 몽카이(Móng Cái)와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의 동싱(東興)을 잇는 박루언 2교(Cầu Bắc luân II, 중국명 베이룬강 2교 北侖河二橋)에서는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 팜빙밍(Phạm Bình Minh)과 중국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王毅)가 이끄는 양국 정부대표단이 모여 “베트남과 중국의 육지 국경 협약체결 20주년과 육지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리 문서(văn kiện pháp lý; 法理文書) 전개(triển khai; 展開)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⁸⁰⁾ 박루언 2교는 1898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톤킨(Tonkin; 오늘날의 베트남 북부지역)과 중국 남부를 잇는 철교로 100여 년 동안 베트남과 중국 간 국경무역과 교류의 역사를 함께해 왔다.⁸¹⁾ 2017년 증대하는 국경무역 수요에 따라 재건축이 완공되어, 몽카이-하롱(Hà Long)-하이퐁-하노이-라오까이를 잇는 고속도로를 통해 경제회랑을 구축하고 활발한 국경무역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9년 초에서야 다리를 통한 중국과의 공식 국경 통관과 무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⁸²⁾ 교량, 검역 및 통관시설 등 새로운 ‘월경 기반시설(cross-border

80)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ùm ảnh: Kỷ niệm 20 năm Việt Nam, Trung Quốc ký Hiệp ước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2020. 8. 23) <http://baochinhphu.vn/Tin-noi-bat/Chum-anh-Ky-niem-20-nam-Viet-Nam-Trung-Quoc-ky-Hiep-uoc-Bien-gioi-tren-dat-lien/405056.vgp>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81) Báo Quảng Ninh, “Khánh thành cầu Bắc Luân II - Cây cầu có khẩu độ nhịp vòm lớn nhất Việt Nam” (2017. 9. 13)

<http://baoquangninh.com.vn/cuoc-song-qua-anh/201709/khanh-thanh-cau-bac-luan-ii-cay-cau-co-khau-do-nhip-vom-lon-nhat-viet-nam-2357069/>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82) Báo Văn hóa Điện tử, “Quảng Ninh: Thông quan cầu Bắc Luân II” (2019. 3. 19.)

infrastructure)’의 건설은 배·중 국경 경관(borderscapes)을 새롭게 구성하고 양국의 발전적 미래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왕이 외교부장과 중국 대표단은 기념식 행사에서 이 새로운 다리를 건너 ‘호아저씨 기념관(Nhà Lưu niệm Bắc Hồ; 호찌민 기념관)’을 탐방하는 것으로 베트남과의 ‘전통적 우의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양국 국경 지역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수교 70주년’의 역사적 맥락에서 ‘국경 문제’를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79년 발발한 ‘국경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된 1991년 11월, 베트남과 중국이 서명한 공동발표문에는 전쟁에 관한 책임과 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국경의 각 지역에서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경민들이 전통적인 우의로 왕래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을 평화와 우의로 건설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며, “현존하는 양국의 영토 국경 문제를 담판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⁸³⁾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은 1993년에 8월에 시작되어 ‘남중국해(베트남은 동해) 문제’ 등 해상 국경 설정과 국경선 획정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육지 국경에 관해서만 1999년 12월 30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고⁸⁴⁾ 2000년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육지 국경 협약’에 따라 첫 번째 국경 표지석이 2001년 말, 몽까이와 동상의 국경 관문에 설치되었다. 적어도 20여 년 전 전쟁 발발의 명분이었던 육지 국경 문제는 협약체결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국경선 획정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자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영토를 빼앗겼다”거나 “중국에 굴복했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베트남 공산당과 중국

<http://baovanhoa.vn/van-hoa/artmid/428/articleid/16765/quang-ninh-thong-quan-cau-bac-luan-ii>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83) Nguyễn, Đình Liêm, *Quan Hệ Việt-Trung Trước Sự Trở Dậy Của Trung Quốc*. Hà Nội: Từ Điển Bách Khoa, 2013, p.78.

84) *Ibid.*, pp.46-54.

공산당의 ‘우의 관계’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이 격렬하게 제기되었다. 2008년 12월 31일 국경 표지석 설치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베트남 내 ‘반중 정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간 충돌 사태와 맞물려 더욱 커지게 되었다.⁸⁵⁾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은 담판을 통해 국경선 획정 기준 및 관리 업무 그리고 국경 관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추진할 것을 명시한 ‘육지 국경에 관한 3개의 법리 문서’를 2010년에 채택했던 것이었다.

몽카이-동싱 국경에서 개최되었던 기념식 행사는 양국의 우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는 ‘3개의 법리 문서 전개 10주년’을 공식 행사명으로 명시하고 국경 운영과 관리에서의 ‘동등한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국경 측량조사, 경계비 설치 10주년’만을 짙막하게 사용하여 서로 ‘번역되지 않는’ 차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경 문제에 관한 양국의 상이한 정치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70년 동안의 우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경 문제가 여전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상호 경합과 ‘집단 기억’ 형성과정에서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글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혁명’과 ‘민족-국가건설’의 꿈과 열망을 키우며 여러 도전과 마주하고 있던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적’ 관계정상화에 합의하는 시점까지 양국관계의 변화를 국경의 역사경관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경’은 근대 민족-국가적 질서가 만들어낸 주변부적 영토개념이자, ‘민족’ 혹은 ‘시민권’적 정체성을 입증하는 “지리체(geo-body)”로서 인식론적 혹은 담론적 구성물로 “사람, 사물,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⁸⁶⁾

85) Shim, op. cit., pp.183-220.

86) 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1940년대 초 베·중 국경 공간은 주류적인 제국주의적 질서의 주변부이자, 대안적 정치세력들이 공통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 연대를 모색하고 경합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국경 너머의 상황이 스스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순망치한’의 인식을, 베·중 국경이 지닌 지정학적 투과성에 대한 전유를 통해 실천하고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경험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베트남의 독립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통해 형성된 ‘민족-국가적 사회주의’ 질서 속에서도, 국경 공간을 ‘동지적 우의 관계’라는 이데올로기적 상상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국경은 그러한 관계 변화의 표지였다. 1955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베·중 국경은 전쟁에 대한 원조를 통해 ‘물신화’된 공간이 되었다. ‘월경’의 주체와 방식 등은 양국의 우의 관계를 ‘수행적(performative)’으로 실현하는 것이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원조의 수행성이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가시적으로 변화할 때 베·중 관계의 균열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양국에서 국경은 해결되거나 합의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합의가 유예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은 결국 국경 지역에서 폭력과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979년 국경전쟁은, 그것이 베·중 국경이라는 특수한 역사경관을 지니고 있던 장소에서 발생했던 것이었기에 더욱 큰 정치적 상징 효과를 낳았다. 전쟁 이후 8년 여 동안의 국경폐쇄와 무력충돌 상황은 한때 물신화되었던 국경 지역을 ‘돌이킬 수 없이’ 세속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베·중 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국경 문제 해결’을 유예했던 것은 그것이 부차적이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상화’된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며, 따라서 전례 없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음을 반증한다.

베트남과 중국이 ‘이웃 국가’로서 비대칭성의 정치구조 속에 놓여 있다

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헤게모니(hegemony)가 관철되거나, 폭력과 전쟁을 통해 비대칭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⁸⁷⁾ 오히려 ‘탈식민주의’와 ‘냉전 시대’ 베트남과 중국 간 국경의 역사 경관은, 양국이 비대칭적 관계의 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웃하기의 정치적 기술’들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베트남, 중국, 국경, 순망치한, 비대칭성의 구조

(논문투고: 2020.11.23 / 논문심사완료: 2020.12.11 / 논문게재 확정일: 2020.12.12)

87) Womack, Brantl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

참고문헌

<단행본>

- Agamben, Giorgio, *State of Ex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A Life*, New York: Hyperion, 2000
- Dương, Trung Quốc, *Việt Nam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 (1919-1945)*, Hà Nội: Giáo Dục, 2001.
- Goscha, Christopher, *Vietnam: A New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6.
-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 II. Quyển Bình*, Saigon, Boston, Los Angeles, New York: OsinBook, 2012.
- Marr, David G., *Vietnam 1945: The Quest for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Momyer, William W., *Air Power in Three Wars [WWII, Korea, Vietnam]*, Washington D.C.: Dept. of Defense, Dept. of the Air Force, 1978.
- Nguyễn, Đình Liêm, *Quan hệ Việt-Trung Trước Sự Trỗi dậy của Trung Quốc*, Hà Nội: Từ Điển Bách Khoa, 2013.
- Nguyễn, Huy Toàn, Vũ Tang Bồng, Nguyễn Huy Thục, Nguyễn Việt Bình and Nguyễn Minh Đức, *Sự thật về Những Lần Xuất quân của Trung Quốc và Quan hệ Việt-Trung*, Đà Nẵng: Đà Nẵng, 1996.
- Nguyễn, Minh Hằng, *Buôn bán qua Biên giới Việt-Trung: Lịch sử-Hiện trạng-Triển vọng*, Hà Nội: Khoa Học Xã Hội., 2001.
- Scott, James C.,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8.

Sự Thật, *Sự thật về Quan hệ Việt Nam - Trung Quốc trong 30 Năm qua*, Hà Nội: Sự Thật, 1979.

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Ủy ban Nhân dân tỉnh Lạng Sơn, *Địa Chí Lạng Sơn*,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1999.

Vũ, Dương Ninh,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Việt Nam - Trung Quốc*, Hà Nội: Công an Nhân dân, 2010.

Womack, Brantl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논문>

노영순, 「1978년 난교(難僑)송환선 사건을 통해 본 중국과 베트남난민」, 『중국 근현대사연구』 제81집(중국근현대사학회, 2019. 3.).

심주형, 「탈냉전시대' 베트남 북부 소수민족 삶의 초국성(Trans-Nationality)」, 『열린 동남아: 초국가적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심주형, 김소연, 이한우, 배기현, 윤대영 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9-65쪽.

심주형, 「정처없는 애도, 끝나지 않은 전쟁: 1968년 '후에학살'에 관한 기억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제50집 2호(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7.).

이한우, 「베트남전쟁시 중국의 북베트남 지원과 양국관계, 1950-1975」,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3』,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159-198.

Asselin, Pierre,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Vol.

11 No. 2, 2011, pp. 155-195.

Ferguson, James, and Akhil Gupta,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Vol. 29, No. 4, 2002, pp. 981-1002.

Goscha, Christopher E., "The Borders of Vietnam's Early Wartime Trade with Southern China: A Contemporary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987-1018.

Hansen, Peter, "Bắc Đi Cư: Catholic Refugees from the North of Vietnam, and Their Role in the Southern Republic, 1954-1959",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4, No. 3, 2009, pp. 173-211.

Hess, Gary R., "The First American Commitment in Indochina: The Acceptance of the "Bao Dai Solution," 1950", *Diplomatic History* Vol. 2, No. 4, 1978, pp. 331-350.

Pác Can, "Bài thơ chữ Hán đầu tiên của Hồ Chí Minh", *Tạp chí Hán Nôm*, số 1, 1990.

Rousseau, Jean-François,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Vol. 35, No. 1, 2014, pp. 1-17.

Roper, Christopher T., "Sino-Vietnamese Relations and the Economy of Vietnam's Border Reg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1019-41.

Shim, Juhyung, 2014, "Haunted Borderland: The Politics on the Border War against China in post-Cold War Vietnam", Ph.D. Dissertation,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Tessier, Olivier, 2008-2009, "Le «grand bouleversement» (long trời lở đất): regards croisés sur la réforme agraire en République dé-

mocratique du Viêt Nam”,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o. 95-96; 유용태의 편역, 「거대한 변혁 - 북베트남 토지개혁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동아시아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pp. 277-372.

Thayer, Carlyle A., “Vietnam: Coping with China”,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pp. 351-367.

Womack, Brantl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t the Border of China and Vietnam: An Introduct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981-86.

Woodside, Alexander, “Nationalism and Poverty in the Breakdown of Sino-Vietnam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52, No. 3, 1979, pp. 381-409.

Zhang, Xiaoming, “China’s 1979 War with Vietnam: A Reassessment”, *The China Quarterly*, Vol. 184, 2005, pp. 851-74.

Zhang, Xiaoming, “Deng Xiaoping and China’s Decision to Go to War with Vietnam”,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2, No. 3, 2010, pp. 3-29.

<기타>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ùm ảnh: Kỷ niệm 20 năm Việt Nam, Trung Quốc ký Hiệp ước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2020. 8. 23.) <http://baochinhphu.vn/Tin-noi-bat/Chum-anh-Ky-niem-20-nam-Viet-Nam-Trung-Quoc-ky-Hiep-uc-Bien-gioi-tren-dat-lien/405056.vgp>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Báo Quảng Ninh, “Khánh thành cầu Bắc Luân II - Cây cầu có khẩu độ

“순망치한(唇亡齒寒; Mũi Hở Răng Lạnh)”과 비대칭성의 구조

nhịp vom lớn nhất Việt Nam”(2017. 9. 13) <http://baoquangninh.com.vn/cuoc-song-qua-anh/201709/khanh-thanh-cau-bac-luan-ii-cay-cau-co-khau-do-nhip-vom-lon-nhat-viet-nam-2357069/>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Báo Văn hóa Điện tử, “Quảng Ninh: Thông quan cầu Bắc Luân II” (2019. 3. 19.) <http://baovanhoa.vn/van-hoa/artnid/428/articleid/16765/quang-ninh-thong-quan-cau-bac-luan-ii> (검색일: 2020년 8월 28일).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Điện mừng kỷ niệm 70 năm ngày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 Trung Quốc” <http://www.mofa.gov.vn/vi/mofa/nr040807104143/nr040807105001/ns200120140115>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Công An Nhân Dân Vũ Trang Bộ Tư Lệnh, “Sơ kết cuộc chiến đấu chống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từ ngày 17-2 đến ngày 18 tháng 3 năm 1979 ở biên giới tỉnh Lạng Sơn” (1979. 4. 6.).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Ban Đối ngoại (VOV5), “Việt Nam vận dụng sáng tạo Chính sách kinh tế mới của Lênin để đổi mới” (2014. 4. 23.) <https://vovworld.vn/vi-VN/binh-luan/viet-nam-van-dung-sang-tao-chinh-sach-kinh-te-moi-cua-lenin-de-doi-moi-232579.vov> (검색일: 2020년 12월 1일).

Hiến Pháp 1980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Nhân Dân, “Thắng lợi rất oanh liệt và toàn diện: Đánh bại 600 nghìn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1979. 3. 20).

Lao Động, “Chiến tranh trong mắt ai: Gặp lại tác giả “Tiếng súng đã vang trên bầu trời biên giới” (2014. 2. 7.) <https://laodong.vn/xa-hoi/chien-tranh-trong-mat-ai-gap-lai-tac-gia-tieng-sung-da-vang-tren-bau-troi-bien-gioi-180601.blđ> (검색일: 2014년 12월 5일).

References

<Books>

- Agamben, Giorgio, *State of Ex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A Life*, New York: Hyperion, 2000
- Dương, Trung Quốc, *Việt Nam Những Sự Kiện Lịch Sử (1919-1945)*, Hà Nội: Giáo Dục, 2001.
- Goscha, Christopher, *Vietnam: A New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6.
- Huy Đức, *Bên Thắng Cuộc: II. Quyền Bính*, Saigon, Boston, Los Angeles, New York: OsinBook, 2012.
- Marr, David G., *Vietnam 1945: The Quest for Pow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Momyer, William W., *Air Power in Three Wars [WWII, Korea, Vietnam]*, Washington D.C.: Dept. of Defense, Dept. of the Air Force, 1978.
- Nguyễn, Đình Liêm, *Quan hệ Việt-Trung Trước Sự Trỗi dậy của Trung Quốc*, Hà Nội: Từ Điển Bách Khoa, 2013.
- Nguyễn, Huy Toàn, Vũ Tang Bồng, Nguyễn Huy Thục, Nguyễn Viết Bình and Nguyễn Minh Đức, *Sự thật về Những Lần Xuất quân của Trung Quốc và Quan hệ Việt-Trung*, Đà Nẵng: Đà Nẵng, 1996.
- Nguyễn, Minh Hằng, *Buôn bán qua Biên giới Việt-Trung: Lịch sử-Hiện trạng-Triển vọng*, Hà Nội: Khoa Học Xã Hội., 2001.
- Scott, James C.,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순망치한(唇亡齒寒; Mũi Hở Răng Lạnh)”과 비대칭성의 구조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8.

Sự Thật, *Sự thật về Quan hệ Việt Nam - Trung Quốc trong 30 Năm qua*, Hà Nội: Sự Thật, 1979.

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Ủy ban Nhân dân tỉnh Lạng Sơn, *Địa Chí Lạng Sơn*,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1999.

Vũ, Dương Ninh,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Việt Nam - Trung Quốc*, Hà Nội: Công an Nhân dân, 2010.

Womack, Brantly,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Zhai, Qiang,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Articles>

Asselin, Pierre, 2011,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and the 1954 Geneva Conference: A revisionist critique", *Cold War History* Vol. 11 No. 2, 2011, pp. 155-195.

Ferguson, James, and Akhil Gupta, "Spatializing States: Toward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merican Ethnologist* Vol. 29, No. 4, 2002, pp. 981-1002.

Goscha, Christopher E., "The Borders of Vietnam's Early Wartime Trade with Southern China: A Contemporary Perspective",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987-1018.

Hansen, Peter, "Bắc Di Cư: Catholic Refugees from the North of Vietnam,

- and Their Role in the Southern Republic, 1954-1959",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4, No. 3, 2009, pp. 173-211.
- Hess, Gary R., "The First American Commitment in Indochina: The Acceptance of the "Bao Dai Solution," 1950", *Diplomatic History* Vol. 2, No. 4, 1978, pp. 331-350.
- Lee, Han Woo, "Chinese aids to North Vietnam and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Vietnam" *The Vietnam War Studies Series* Vol. 3,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K), 2005, pp. 159-198.
- Nho, Young Soon, "The Vietnamese Boat People and the Affair of Vietnam Huaqiao Repatriation Ships" *Korean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81, 2019.3, pp. 99-124.
- Pác Can, "Bài thơ chữ Hán đầu tiên của Hồ Chí Minh", *Tạp chí Hán Nôm*, số 1, 1990.
- Rousseau, Jean-François,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Vol. 35, No. 1, 2014, pp. 1-17.
- Roper, Christopher T., "Sino-Vietnamese Relations and the Economy of Vietnam's Border Reg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1019-41.
- Shim, Juhyung, 2014, "Haunted Borderland: The Politics on the Border War against China in post-Cold War Vietnam", Ph.D. Dissertation,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Duke University.
- Shim, Ju Hyung, "The Trans-Nationality of Life in the pos-Cold War Era of Ethnic Minorities in Northern Vietnam" *Unlocked Southeast Asia: Seeking for Transnational Relations and New Identities*, Shim

- et al., Sogang University Press, 2017, pp. 9-65.
- Shim, Ju Hyung, “Uprooted Mourning, Endless War: The 1968 ‘Huế Massacre’ in Vietnam”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Vol. 50 No. 2, 2017, pp. 135-187.
- Tessier, Olivier, 2008-2009, “Le «grand bouleversement» (long trời lở đất): regards croisés sur la réforme agraire en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Việt Nam”,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o. 95-96
- Thayer, Carlyle A., “Vietnam: Coping with China”, *Southeast Asian Affairs*, 1994, pp. 351-367.
- Womack, Brantly,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t the Border of China and Vietnam: An Introduction”, *Asian Survey* Vol. 40, No. 6, 2000, pp. 981-86.
- Woodside, Alexander, “Nationalism and Poverty in the Breakdown of Sino-Vietnamese Relations”, *Pacific Affairs* Vol. 52, No. 3, 1979, pp. 381-409.
- Zhang, Xiaoming, “China’s 1979 War with Vietnam: A Reassessment”, *The China Quarterly*, Vol. 184, 2005, pp. 851-74.
- Zhang, Xiaoming, “Deng Xiaoping and China’s Decision to Go to War with Vietnam”,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2, No. 3, 2010, pp. 3-29.

<Miscellaneous>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ùm ảnh: Kỷ niệm 20 năm Việt Nam, Trung Quốc ký Hiệp ước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2020. 8. 23.) <http://baochinhphu.vn/Tin->

noi-bat/Chum-anh-Ky-niem-20-nam-Viet-Nam-Trung-Quoc-ky-Hiep-uoc-Bien-gioi-tren-dat-lien/405056.vgp (Accessed: 08/28/2010).

Báo Quảng Ninh, “Khánh thành cầu Bắc Luân II - Cây cầu có khẩu độ nhịp vòm lớn nhất Việt Nam”(2017. 9. 13) <http://baoquangninh.com.vn/cuoc-song-qua-anh/201709/khanh-thanh-cau-bac-luan-ii-cay-cau-co-khau-do-nhip-vom-lon-nhat-viet-nam-2357069/> (Accessed: 08/28/2020).

Báo Văn hóa Điện tử, “Quảng Ninh: Thông quan cầu Bắc Luân II” (2019. 3. 19.) <http://baovanhoa.vn/van-hoa/artnid/428/articleid/16765/quang-ninh-thong-quan-cau-bac-luan-ii> (Accessed: 08/28/2020).

Bộ Ngoại giao Việt Nam, “Điện mừng kỷ niệm 70 năm ngày thiết lập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 - Trung Quốc” <http://www.mofa.gov.vn/vi/mofa/nr040807104143/nr040807105001/ns200120140115> (Accessed: 08/10/2020).

Công An Nhân Dân Vũ Trang Bộ Tư Lệnh, “Sơ kết cuộc chiến đấu chống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từ ngày 17-2 đến ngày 18 tháng 3 năm 1979 ở biên giới tỉnh Lạng Sơn” (1979. 4. 6.).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Ban Đối ngoại (VOV5), “Việt Nam vận dụng sáng tạo Chính sách kinh tế mới của Lênin để đổi mới” (2014. 4. 23.) <https://vovworld.vn/vi-VN/binh-luan/viet-nam-van-dung-sang-tao-chinh-sach-kinh-te-moi-cua-lenin-de-doi-moi-232579.vov> (Accessed: 12/1/2020).

Hiến Pháp 1980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Nhân Dân, “Thắng lợi rất oanh liệt và toàn diện: Đánh bại 600 nghìn quân Trung Quốc xâm lược” (1979. 3. 20).

“순망치한(脣亡齒寒; Môi Hở Răng Lạnh)”과 비대칭성의 구조

Lao Đồng, “Chiến tranh trong mắt ai: Gặp lại tác giả “Tiếng súng đã vang trên bầu trời biên giới” (2014. 2. 7.) <https://laodong.vn/xa-hoi/chien-tranh-trong-mat-ai-gap-lai-tac-gia-tieng-sung-da-vang-tren-bau-troi-bien-gioi-180601.bld> (Accessed: 12/05/2014).

“Without the Lips, the Teeth feel the Cold(脣亡齒寒)” and the Structure of Asymmetry : The Vietnam-China Relations and the Historiescapes of the Border

Juhyung Shim

This paper traces the trajectory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China through the historiescapes of the border in motion. In 2020, both countries celeb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neighboring socialist countries facing the national border, Vietnam and China have shared the extraordinary history of anti-imperialist war and nation-state building, deeply inscribed in the border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40s. After the Japanese troops conquered part of south China, they entered through the northern border of Vietnam in 1940. Since then, the discourse of “without the lips, the teeth feel the cold (脣亡齒寒),” once Hồ Chí Minh referenced in his poem for Sino-Viet anti-imperialist alliance, has long been appropriated for Viet-China Relationship.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DRV) was established in 1945,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was founded in 1949. While the DRV was in the middle of the First Indochina War against France and enclaved in its northern border with China, the PRC granted its official recognition as the first country ever in the world to the DRV in 1950. The so-called socialist fraternity seemed to burgeon and shape an exceptional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China; however,

the apparent difference in scale had constituted the asymmetric political structure in the Cold War era.

While many scholars have examined the Vietnam - China relationship mainly focusing on the party-state level intera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blematize the historyscapes of the border as the vulnerable and legible place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e borderscapes between Vietnam and China had been constituted by the imagination of the socialist fraternity as well as been affected by the structure of asymmetry deeply embedded in the bilateral relations. The border had served as the memorable site of historical moments: the military cooperations until 1954, the safe-havens and the flows of aids during the Vietnam War, the war in 1979,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relations in 1991. The historyscapes of the border have been not only reflected by but also mattered to the Viet-China relations. This paper also tries to focus on the Vietnamese perspective about China and the border, since the way Vietnam copes with China and governs the border reveals its political strategy to manage the normalcy of the asymmetric bilateral relations and how China responds to it.

In sum, the Cold War historyscapes of the border between Vietnam and China have unraveled that the political strategy of intimate independence rather than dominance or dependence has kept being in question at the border region. The border between Vietnam and China has gradually been transformed from the symbol of the socialist fraternity to the place of encountering asymmetric national ‘geo-bodies’ of both countries.

Key Words : Vietnam, China, Border, Bilateral Relations, Structure of Asymmetry

